

# 포항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총력... 실무추진단 구성

김남일 부시장 단장으로 추진단 30개 이상 기업 입주... 조건 유리 포항시 중점전략 산업으로 육성

포항시가 초격차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핵심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포항시는 19일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텍,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이차전지 분야 최적의 인프라가 구축된 포항의 산업 생태계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차전지산업 생태계를 스케일업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 1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난해 11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에서 네 번째), 덩 웨이밍 중국 CNGR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 합동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식 공모 일정에 맞춰 유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화단지 선정 시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연구·개발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공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GS

건설 등 대기업의 이차전지 소재, 배터리 재활용 사업 투자와 산단 내 30개 이상의 전후방 관련 기업이 입주해 이차전지 특화산단으로 입지를 다지는 등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CNGR과 1조 원 투자양해각서를 맺으며 총 3조 9000억 원 이상의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포항 배

터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포항시의 중점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에 있다.

또한,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가속기연구소, 포항테크노파크 등 집적화된 R&BD 기관의 연구 인력과 폴리텍·마이스터고 등 공정 및 현장 인력까지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지난해 11월 30개 기관이 뜻을 함께하는 '경북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하는 등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육성의 요람이 되고, 초격차의 기술 경쟁력 확보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며 지방소멸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영덕군 어촌계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

### 영덕군 해양쓰레기 42톤 수거활동

영덕군은 설 명절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해안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설맞이 해안환경 정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해안가와 항 포구, 블루로드 일대 등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정화활동엔 지역의 어촌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오보해수욕장, 경정항, 석리항, 대진항 등지에서 폐어망, 폐통발 등의 해양쓰레기 약 42톤을 수거해 처리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의 해양자원과 환경을 지키고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경북)=김종실 기자 kimjongseol@



코마테크놀로지의 반도체 공정부품 제2공장 투자 양해각서 체결 기념 사진(왼쪽부터 구자근 국회의원, 이철우도지사, 박성훈 코마테크놀로지 대표, 감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위원장).

## 반도체 공정부품 공장 MOU 구미 K-반도체단지 '성큼'

코마테크놀로지, 소재부품 전문기업 389억 투자, 52명 이상 고용 계획

구미시는 지난 18일 오후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코마테크놀로지 박성훈 대표,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마테크놀로지의 반도체 공정 소모성 부품분야 제2공장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투자협약에서 코마테크놀로지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 제2공장(1만2000평 규모)을 착공하여 389억 원을 투자, 52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

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마테크놀로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에 필요한 실리콘, 사파이어, 세라믹 부품을 만드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창업 이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정밀기기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부품 제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독보적인 실리콘 부품 제조 기술 보유기업이다.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360여 개사나 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 전남교육청, '소멸위기' 유아교육 강화

유아교육 기본계획 발표

전남교육청이 소멸 위기의 교육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 부담금 경감·교원 인건비보조 지원금을 확대' 하는 등의 유아교육을 강화한다.

19일 도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교직원, 교육지원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유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학부모 부담금 경감과 교원 인건비보조 지원금을 확대해 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는 지난해 대비 6만원 인상해 교원 1인당 최대 87만원을 지원한다.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을 신설해 공립 15만원, 사립 43만원을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수당'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한다.

공·사립유치원 3~5세 유아 식비는 공립 2300원, 사립 24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소규모화 되고 있는 지역의 유치원 특성을 반영해 놀이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1학급의 작은유치원은 교육계획 공동 수립,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이음교육을 활성화해 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행복안심유치원 30개원과 미래형유치원 20개원을 확대 운영한다.

유치원에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이 구축되며 유아 시기의 독서교육, 기후위기대응 생태환경교육, 인성·민주시민교육도 추진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신천지예수교회, 올해 수료생 '역대 최대'

제39차 정기총회·유월절 기념예배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5일 열린 '39차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이룬 성과들을 재확인하며 올해도 내적 성장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을 다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 10만 6186명의 선교센터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교인 수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기성교회와 달리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성도 수 온라인 세미나와 온라인 선교센터 운영 등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선교센터는 한 해 동안 국내외 총

3347회(국내 총 1715회, 해외 1632회) 개강을 했다. 이는 10만 명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료생 배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신천지 대세' 흐름은 국내외 목회자들과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이어졌다. 국내 177건, 해외 3천 760건(지난해 12월말 현재)의 MOU를 체결하며 수많은 국내외 목회자들이 신천지예수교회와 복음 교류 협약에 나섰다.

또한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 2차에 걸친 대대적인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 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경남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경상남도는 올해 56억 원을 지원하여 ▲축사 내·외부 정보수집, 원격 모니터링 등 환경관리 ▲사료빈 관리, 출하선별기 등 사양관리 ▲생산, 출하관리 등 경영관리와 같은 관리 부문별 축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구입을 위해 '축산분야 정보통신 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

한다. 신청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정보통신 기술(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로서 작년 예비신청하여 사전컨설팅을 이행하고 있는 103개 축산농가이다.

/경남=김명찬 기자 metrobusan3@

## 청송군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청송군은 높아져가는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흐름에 발맞추어 2023년도에도 다양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신청을 받는다.

먼저 군은 여성농업인들이 고된 농사로 부터 벗어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행복바우처 카드 형태로 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20%)이 지원되며, 의료, 사행성 등의 업종을 제외한 전국의 NH농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이 보다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청송(경북)=이상호 기자